

강기정 “광주,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 최적지”

국회서 AI 예산 확보 기자회견

GPU 1만개 즉각 확보 등 제시
‘국가AI컴퓨팅센터’ 유치 촉구
“광주, 인프라·기업·인재 축적”

정부가 ‘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’과 ‘GPU 1만개 확보’ 등 인공지능(AI)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.

광주는 이미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, AI 관련 기업 집적과 전력, 부지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.

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·조인철·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운영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.

강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GPU 1만개 확보,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등에 대해



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인철·안도걸·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AI관련 예산확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**광주시 제공**

환경 입장을 밝히고 “정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,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일과 ‘AI반도체 주권 강화’를 위한 외국산 AI반도체의 국산화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강 시장은 ‘속도’와 ‘집적’에 기반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.

강 시장이 밝힌 3대 방향은 △GPU 1만개 즉각 확보 △운영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AI데이터센터 100% 활용 △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이다.

강 시장은 “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·기업·인재로 이어지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데다 풍부한 전력과 부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까지 가진 유일한 도시”라

며 “광주는 대한민국 AI 성장판을 열기 위한 최적지다”고 강조했다.

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상용화는 산업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다. 광주는 지난 3년간 국내 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실증과 검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, 정부와 함께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강 시장의 주장이다.

강 시장은 “게임·탄핵으로 제때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가진 GPU자원을 절반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견되는 등 그동안 순항해 온 광주의 AX실증 2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”며 “이미 구축된 인프라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 H100 880장을 보유한 광주, AI 인재양성 사다리를 갖추고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설립·운영한 경험이 있는 광주가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.

강 시장은 “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을 100%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

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”고 밝혔다. 50% 가동으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 지원을 서둘러 100%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.

현재 광주는 △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△실증장비 구축 △AI사관학교 운영 △프리오피스 등 276개 인공지능 기업 집적 △1만1000여명의 인재 배출 △전국 900여개 기업에 AI 연구개발(R&D) 2000여건 지원 등 성과를 창출, ‘인프라·기업·인재’로 이어지는 자생적 AI 생태계를 완성한 상태다.

강 시장은 “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장소는 광주이길 바란다”며 “AI는 광주만의 과제가 아니라,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프로젝트다.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 AI가 도약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한편 강 시장은 다음 주 서울 각 정당을 방문해 인공지능 도시, 5·18 정신 헌법전문 수록,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등 광주시 대선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. **정삼아 기자** sangja.jeong@jnilbo.com

이재명, 대선 출마 선언 “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”

‘K이니셔티브’ 국가비전 내세워 첫 국정 목표로 ‘경제성장’ 제시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“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”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.

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‘K이니셔티브’라는 국가 비전을 앞세워 “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,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
이 전 대표는 “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시대에 김구 선생이 ‘문화 강국’을 얘기했다”며 “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,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

현실 권력을 끌어내린,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”고 말했다.

이 전 대표는 “이런 것을 ‘K이니셔티브’라고 통칭하고 싶다”며 “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”고 강조했다.

이 전 대표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경제성장을 제시했다.

이 전 대표는 “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사면초가 같은 상태”라며 “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난 3년간 정부는 경제를 방치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첨단과학기술 투자가 중요한데

문제는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”이라며 “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, 대대적인 기술, 연구·개발 투자로 살아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그는 자신의 ‘잘사니즘’을 키워드로 제시한 뒤 “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,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”고 말했다.

이 전 대표는 경제성장에 이은 목표로는 ‘생명 중시’를 제시했다.

그는 “재난이나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보는 것은 힘겹고, 못살고, 어려운 사람



잘사니즘
가치지향 정신적
▶
더 행복한 삶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. **이재명 캠프 제공**

순’이라면서 “그 사회·문화의 수준은 약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렸다”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생명·안전을 유지해야 더 나은

삶,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다”며 “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,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”이라고 말했다.

▶ 3면에 계속 **서울·김선욱 기자**

상·하수도 비굴착

• 국내 최초 상·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
『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.S.L공법』

• 하수도 부분보수공법
『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.P.L공법』

굴착교체의 문제점

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,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



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

-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
- 투입인원! 인건비 절감
-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
-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
- 터미널관과 접속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

“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(유)탐환경건설·(주)탐앤제이”

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.